



## 력비운동을

## 탄생시킨 일



김 정 만

〈남서울대공원 진료과장〉

**지구** 상에 풀먹고 사는 포유동물중 덩치가 자그마치 260kg의 거구이면서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놓고 편히 쉬고 배부르게 먹으며 자기 동종끼리만 오순도순 한가롭게 살 수 없는 가없는 동물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얼룩말이 꼽힌다.

보기에 좋은 먹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검정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의 선명한 색깔로 아프리카 초원의 수천 수만 마리의 초식동물 중 유독 한눈에 번쩍 뜨이는 짐승은 얼룩말인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우아하고 늘씬한 각선미와 날렵한 몸매에 기민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번개처럼 행동하지만 항상 바람에 예민한 바람개비처럼 긴장과 초조속에 사자, 치타, 표범등 맹수류의 기습공격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가없는 아프리카 최대의 겁장이 동물로 손꼽히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천성이 온순하고 천진난만한 얼룩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동물에 대한 도전, 투쟁, 공격 및 질투 등을 모르고 오로지 인간들이 외치는 멍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삶의 진리를 몸소 피부로 체험하면서 단합된 행동통일을 하나의 신앙처럼 실천에 옮기

면서 살아간다. 동료들이 다른 영양종류들과 섞여서 풀을 뜯어먹는 순간에도 리더격인 얼룩말은 철두철미한 보초를 서주며 별안간 사자, 치타 등이 기습해오면 비명소리와 투레질로 초원의 파수병인 기린들이 뛰어가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뒷발굽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시속 64km의 속력으로 집단 질주하여 대피한다. 이때에 구름처럼 솟아오르는 먼지 때문에 추격해오던 맹수들은 시야가 흐려져서 살생할 동물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구름같이 몰려서 도망치는 무리속을 감히 파고들지 못한다.

얼룩말의 무리는 보통 100마리에서 수백마리가 한데 모여서 이동하지만 새끼와 아성수 및 노약자는 반드시 무리의 한가운데서 단합된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만약 성질이 괴팍한 독불장군처럼 단체생활에서 이탈하여 개별적인 행동을 하다가는 백발백중 4~5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자나 맹수들의 아침 저녁 밥상의 이슬로 사라지는 신세가 되고 만다.

얼룩말은 ①마운틴 얼룩말 ②그란트 얼룩말 ③체투만스 얼룩말 ④그레비얼룩말 등 4종류로 대별된다.

이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란트 얼룩말은 아프리카

의 수단, 케냐, 북부르데시아 등의 초원의 사바나에서 풀따라 이동·서식한다. 몸통의 길이는 2~2.4m에 키는 1.2~1.4m이고 꼬리는 47~57cm에 체중은 260kg까지 나간다.

얼룩말들은 일반 가축화된 승마용 말들처럼 기억력과 후각, 눈치 등이 예민하지 못하다. 예컨대 사자나 치타 등이 살고 있는 영역권내를 사전에 후각으로 감지해낸 후라면 아무리 풀을 뜯어먹고 살아도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먹는데에 집착한 나머지 허무하게 희생당하는 예가 허다하다.

그러나 새끼가 달린 어미는 풀을 뜯어 먹는 것보다는 새끼보호와 주변의 경계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맹수들에게 새끼를 살생당하는 일이 없다. 어미의 정성어린 보호속에 자란 새끼는 생후 4~5년이 되어 발정기가 오면 단체행동에서 이탈하거나 명령에 잘 복종치 않으며 신경질과 동료들에 대한 히스테리 또는 무리속을 정신없이 헤메이며 평상시 볼 수 없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즉, 머리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눈에 뜨이게 자주한다. 그리고 평상시 암전하던 암늪이 투레질을 쉴사이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가 하면 꼬리의 말총채를 갖고 이웃의 숫놈들에게만 좌우로 후려쳐 능동적인 프로포즈를 취한다.

그래도 숫놈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대문짝만한 엉덩판을 숫놈의 입근처와 몸통에다 비벼댄다.

이윽고 신부감이 발정난 것을 알아챌 때가 되면 실금증이 걸린 것처럼 사방에다 오줌을 짹짹 짹 짹 똥내방내 소문을 낸다.

이때부터 신부감은 본격적으로 체구와 허우대가 좋은 신랑감을 고른 후 별안간 주먹만한 쿡구멍을 벌렁대며 여러 마리의 숫놈들 중에서 투레질로 신랑감에게 선정발표를 하면 다른 숫놈들은 멀쭉해서 자리를 피해준다.

이때부터 신랑감은 긴혀를 내민 후 신부감의 온몸통을 훑아서 전신 맛사지를 해주는 동안 암늪은 완전 KO의 비명소리를 지르며 최후의 허니문의 신혼여행일만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발정의 최정기가 되면 음부가 최고도로 종장되고 암늪은 앞발을 탕탕 구르며 신방을 빨리 차려달라고 능동적인 종용을 한다.

그러면 이때를 놓칠새라 신랑감은 비호같은 몸동작으로 전신을 45도 각도로 앞발을 추켜 올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느긋하고 푸짐하며 황홀한 신방을 후회없이 암늪이 만끽하도록 차려준다.

그리하여 수태한지 345~390일이 가까워서 분만 하루전에 진통이오면 종족번식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얼룩말 숫놈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적의 왕자인 코끼리 떼가 살고 있는 마을 가까이 온무리가 접근한다. 그리고 나서 암늪이 진통이 와서 양수가 터져나오면 숫놈들은 암늪쪽으로 머리를 모아 탄탄하고도 완전한 원형의 스크럼을 짠다.

스크럼이 짜여진 다음에는 어떠한 무서운 맹수가 접근해와도 꼼짝하지 않고 암늪이 안심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하며, 멋모르고 사자나 다른 맹수가 피냄새를 맡고 다가오게 되면 얼룩말은 뒷발의 사정거리까지 접근해오게 한 후 별안간 벼락치듯이 뒷발로 맹수의 몸통이나 얼굴을 내차 얼떨결에 보통 4~5m가량 나가떨어진 맹수는 사력을 다해서 도망쳐 버리고 만다.

이와같이 사자나 맹수들만 보면 천길만길 도망치던 얼룩말들도 종족번식을 위해서는 단합된 힘과 죽음을 불사하는 대항의 똘치힘으로 백수의 왕자라 자처하는 사자라 할지라도 단한방의 뒷발질로 이겨내는 무서운 힘을 창조해내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 겁많은 얼룩말들이 얼굴을 안보이고 뒷다리와 엉덩판만 보이며 원형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으면 맹수들이 겁이 나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얼룩말들이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무사히 태어나게 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한 영국의 동물학자는 스포츠 전문가에게 힌트를 주어 공을 스크럼 속에서 발로만 조작하여 꼬집어낸 후 길쭉한 볼(말 새끼)이 나오면 대각선으로 쭉 늘어서서 공보다는 사람이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법칙의 새로운 운동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공을 달리면서 옆으로 던지면 받은 사람만이 공을 안고 전진할 수 있는 남성적인 스포츠를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럭비인 것이다.

럭비란 얼룩말들이 집단의 단합된 힘을 이용해 새끼를 분만시킨 후 새끼가 어미 옆에서 경속보로 뛰어나는 것을 성수의 얼룩말들이 대각선 모형으로 줄을 지어 적으로부터 방어·보호해주며 새끼보다 절대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는 얼룩말들의 단합된 힘과 행동을 모방한 운동인 것이다. ■